

# 대안 금융으로서 이슬람 금융을 조명하다.

## 「삶과 종교」와 「Early Bird Project 6」강의페어링

### 금융공학과 4학년 201121463 고현미, 이숙희 교수님 지도

#### 목적

현대 자본주의는 빈번한 금융 위기, 빈부 격차의 심화, 지역 간 격차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 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무분별한 구조화 금융 상품 남발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국제 금융 시스템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서 이슬람 금융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슬람 금융은 아직 역사가 짧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의 폭이 넓지 않으며 한계점도 존재한다. 이에 본 강의 페어링은 이슬람 금융에 내재한 종교적 의미와 대안 금융으로서의 의미를 이해한 뒤, 이슬람 금융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 「Early Bird Project 6」에서의 강의 페어링

금융위기 이후 서구 금융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일면서, 상대적으로 투기적 요소가 적은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를 전통적 금융의 대체 금융 상품으로 보기 시작했다. 종교적, 철학적 논리로 상품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슬람 금융의 방식이 새로운 안전 투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arly Bird Project를 통한 금융 시장 조사를 통해, 14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이슬람 펀드 운용자산규모는 607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5.3%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1과 같이 이슬람 펀드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슬람 금융은 금융 위기 이후 급격한 성장세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은 후 '수쿠크법'을 추진했으며 이슬람 금융을 통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외에도 외화 자금 조달을 다각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특정 종교와 관련한 세제 혜택은 공평하지 않으며, 테러 자금을 악용될 수 있다는 일부 여론으로 인해 지금은 도입이 무산된 상태이다.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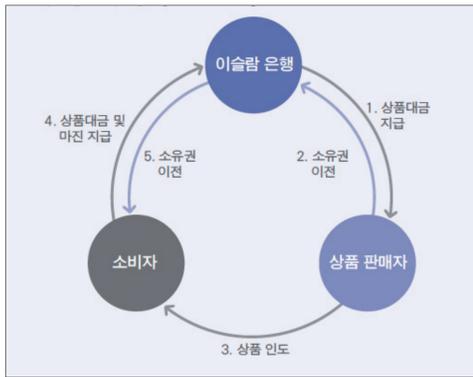


그림.2

#### 「삶과 종교」에서의 강의 페어링

이슬람 금융(Islamic Finance)은 좁은 의미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안된 금융 서비스 및 상품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이를 제공하는 금융 시스템을 일컫는다. 샤리아는 아랍어로 '사람의 길'이라는 의미이며 기본적으로 이슬람 경전인 쿠란(Quran)과 무함마드의 언행인 순나(Sunnah) 등의 여러 요소로 구성된다. 이 샤리아는 이슬람 교도들의 종교 생활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상적인 개인 또는 사회생활의 전반의 지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슬람 경제 원칙은 이슬람 금융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은 위험과 정보 측면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며 불명확성(gharar)을 배제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공공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 샤리아를 통해 금융 구조와 거래를 뒷받침하고 규율하고자 한다. 이슬람 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 거래 시 이자(riba) 및 이자로 판단 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추가적인 금액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샤리아에서는 금전의 자기 증식을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든 상품 및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물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슬람 은행은 사업자의 파트너로서 사업 수익을 배분 받는다. 이슬람 금융은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대신 실물 자산의 매매 또는 리스계약에 따른 수수료나 사업 투자를 통한 손익분배 방식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불한다. 예를 들어, 그림2와 같은 '무라바하'라는 계약은 이슬람 은행이 소비자(상품구매자)대신 상품(또는 원료)을 구입한 후 마진(이윤)을 붙여 재 판매하는 신용거래 방식으로 원가 가산 계약에 기초한다. 이때 수수료가 은행의 마진이 된다. 이는 상품구매자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 생산자가 원자재 구매를 위한 자본 조달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 대안 금융으로서 이슬람 금융

현대 금융 자본주의와는 달리 이슬람 금융은 금융의 사회적, 도덕적 역할을 중시하며, 그로 인해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무분별한 성장만을 추구하는 서구식 금융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각광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슬람 자본은 군수, 도박, 포르노, 주류 산업과 같은 샤리아에 부합하지 않은 즉, 종교적 율법에 맞지 않는 사업에는 투자 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도 투자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성격이 안전 투자의 대안으로서 이슬람 금융을 부각시킨다. 또한 수익과 성장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금융의 윤리적 역할을 중시하는 이슬람 금융의 특징이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Microfinance 혹은 Microcredit의 아버지라 불리는 무함마드 유누스의 그라민 은행이 나타나게 된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소 금융으로 잘 알려진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현대적 서민 금융의 효시가 바로 그라민 은행이다. 낮은 신용 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대안 금융이 바로 이슬람 금융으로부터 온 것이다. 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무슬림들은 종교적인 이유들로 아직까지 전통적인 금융 이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향후 막대한 이슬람 금융의 수요가 창출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샤리아에 부합하는 채권인 수쿱을 발행하여 이슬람 경제권이라는 새로운 자금 조달처를 찾을 수 있다.

#### 이슬람 금융의 한계와 극복방안

가장 큰 한계는 샤리아 기준이 명확하게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샤리아 위원회에 속하는 학자들의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샤리아 부합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거래 자체가 성사 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또한 샤리아 율법학자들이 희소하다는 제약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슬람 금융기관 회계 감사기구(AAOIFI: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를 중심으로 금융 상품의 구조나 문서 작성상의 표준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다른 문제로는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반금융과 이슬람 금융 사이의 해결방식이 서로 달라 분쟁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어떠한 법률 체계로 판단할 것인가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양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G20내에서도 수쿱을 통한 전 세계 자금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도 수쿱 논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다시 수쿠크 법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려는 금융계의 노력이 시급하다.

#### 참고문헌

- 이권형, '이슬람 금융의 개요 및 일반 금융과의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08),
- 심수연, '글로벌 이슬람 펀드 동향', 자본시장연구원(15.07),
- 김한수, 김보영, '이슬람 금융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12.12)
- 해리스 이르판, 강찬구 역, '이슬람 은행에는 이자가 없다', 처음북스